

##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Aggression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ts

유 안 진\*\*

Yoo, An Jin

한 유 진\*\*\*

Han, Eugene

김 진 경\*\*\*\*

Kim, Jin Kyung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ge and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y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n 331 adolescents, 11 or 14 years of age in 6 public schools in Seoul. They completed 2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ll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by level of aggression. Highly aggressive adolescents had significant vulnerability in peer relationships as contrasted with mid- and low- aggressive groups. They reported more egocentricity, conflict, rejection, and less emotional support from peers. Fourteen-year-old reported more intimacy, more emotional support, and less physical aggression than 11-year-olds. Boys showed much more egocentricity and perceived more rejection than girls. Boys displayed more physical aggression to persons and girls showed more angry expres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various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peer relationships of high aggressive adolescents.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공격성(aggression), 또래관계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27일

\* 이 연구는 2002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 eaj@snu.ac.kr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초기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청소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하고 동시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급격한 변화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박증 등의 심리적인 부적응과 사회적 문제행동 및 일탈행동 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 낮은 학업 성취, 학교 중퇴, 범죄, 정신 병리와 같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Farrington, 1995).

취학 전의 과잉활동성과 적대적인 행동 등의 잠재적인 공격성은 청소년기, 성인기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유도한다. 초기에 잠재되어있던 공격적인 성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행이나 범죄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Loeber, 1988). 따라서 이후에 가시화되는 문제행동, 비행, 폭력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문제행동을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공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Harris, 1992), 초기에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격성의 중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고 공격행동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양상이 심각해지므로(Kupersmidt & Coie, 1990),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만 11세, 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체적으로 남아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Khatri, 1996), 하위요인별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므로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도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과도기적 시기인 청소년기동안에 공통의 문제를 경험하는 또래집단은 사회적·정서적 기반으로서, 전형적인 스트레스와 문제에 대처하는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자기인식과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Hartup, 1983). 청소년의 발달에서 또래집단은 활동, 영향력, 지지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며,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는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Buhrmester, 1990).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또래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또래집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영향력보다 커지게 된다(Asher, 1983). 초기 청소년기 동안 우정관계에 대한 기대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Berndt, 1982; Smollar & Youniss, 1982),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또래관계는 연령에 따른 사회적·인지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또래관계 질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윤미경, 1998)들이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초기 청소년기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관계 질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래관계 질 중 친밀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요인에서는 성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윤미경, 1998), 갈등, 경쟁과 같은 부정적 요인에서는 성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유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시기에는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다. 먼저 공격적인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수용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Kupersmidt, & Coie, 1990). 즉, 만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또래들에게 거부당하고,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한 공격적인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hatri, 1996).

또한 공격적인 청소년은 빈약한 사회적 기술과 적대적이고 비효과적인 전략으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Crick & Groper, 1996; Perry, Perry & Kennedy, 1992). 공격적인 청소년은 대인관계 기술의 부재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Keenan, Loeber, Zhang, Stouthamer-Loeber & Van Kammen, 1995), 갈등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Crick & Dodge, 1996). 원만한 또래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협조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데, 공격적인 청소년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부재로 또래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격적인 청소년은 인지적 왜곡(cognitive distortions)을 경험하여 공격성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다. 즉, 공격적인 청소년은 비공격적인 또래에 비해 공격성이 가시적인 보상을 가져오며, 자신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공격성이 또래들의 해로운 행동을 통제하며 희생아동에게는 어떤 영구적인 해도 일

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Crick & Dodge, 1996; Quiggle, Panak, Garber & Dodge, 1992). 또한 공격적인 청소년은 자신이 초래할 고통이나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Dodge, 1996; Zakriski & Coie, 1996).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은 지속될 우려가 있기에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반면, 공격적인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며 관계를 오히려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즉, 공격적인 청소년이 모두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고립되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illessan, Ijzendoorn, Lieshout & Hartup, 1992). Cairns, Neckerman, Gest와 Gariepy(1988)는 초등학교 4학년과 7학년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한 결과, 공격적인 청소년도 또래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되었고, 사회적 집단내에서 핵심멤버로 정의되었다. 또한 Coie, Dodge와 Coppotelli(1982)는 공격적인 청소년이 인기와 거부 양측 면에서 평균점수보다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또래거부와 또래수용의 양가적(controversial)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했다. 거부와 인기가 같은 아동에게 존재할 수 있으며, 독단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이 인기를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공격성 수준과 또래의 수용 및 거부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또래관계는 단순히 수용되고 거부되는 차원뿐만 아니라 긍정적 지원, 갈등과 경쟁 같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각각의 요인을 세분화하여 공격성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공격성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공격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공격성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공격성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공격성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관악구, 송파구, 동대문구의 중산층 거주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3개교씩 총 6개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총 34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331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의 평균 연령은 만 11세이며 중학교 2학년은 만 14세였다. 연구대상자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단위: 명)

성 별	초등5(11세)	중 2(14세)	계
남	82	72	154
여	82	95	177
계	164	167	331

### 2. 조사 도구의 구성

#### 1) 공격성

Orpinas와 Frankoski(2001)가 개발한 청소년용 자기 보고식 공격성 척도(The Aggression Scale)를 기초로 하고,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참조하여,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2)가 구성한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회상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간 제시된 공격 행동의 빈도를 측정한다. 언어적 공격(6개 문항), 대인 공격행동(7개 문항), 대물 공격행동(3개 문항), 분노 표출(4개 문항)의 4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이 척도는 0번(0점)부터 6번 혹은 그 이상(6점)까지의 공격행동 빈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120점이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높게 나타났다(하위 요인

별로 언어적 공격 :  $\alpha = .80$ , 대인 공격행동 :  $\alpha = .80$ , 대물 공격행동 :  $\alpha = .72$ , 분노 표출 :  $\alpha = .62$ ).

## 2) 또래관계의 질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33문항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로서, 애정, 친밀감, 신뢰, 사회적 상호작용, 인정, 도움, 양육, 갈등, 처벌, 상대적 지위, 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도구에서 또래 관계 이외의 성인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에 맞게 긍정적 요인 20문항, 부정적 요인 20문항 총 40문항으로 또래관계 질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각각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축을 회전한 결과 긍정적 요인에서 친밀감, 정서적지지, 관계의 만족감 등 3요인이, 부정적 요인에서 일방적 주도, 갈등, 무시 등 3요인 총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40이면서 다른 요인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는 문항을 선정한 결과 긍정적 요인의 친밀감 3문항, 정서적지지 7문항, 관계 만족 5문항 등 15문항, 부정적 요인의 무시 6문항, 갈등 5문항, 일방적 주도의 4문항 등 15문항씩 총 30문항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82였으며,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긍정적 또래관계 질은  $\alpha = .86$  (친밀감 :  $\alpha = .68$ , 정서적 지지 :  $\alpha = .83$ , 관계만족 :  $\alpha = .75$ )이며, 부정적 또래관계 질은  $\alpha = .83$ (무시 :  $\alpha = .72$ , 갈등 :  $\alpha = .85$ , 일방적 주도 :  $\alpha = .63$ )이었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동대문구의 D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과 S중학교 2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질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t-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공격성 차이

### 1) 연령에 따른 공격성 차이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각각의 항목은 5점 리커트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또래관계 질 척도의 전역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공격성의 총합은 11세 청소년이 평균 19.10 점, 14세 청소년이 평균 18.43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11세(초 5) M(SD)	14세(중 2) M(SD)	t
언어적 공격	6.79(6.23)	6.85(6.44)	-.092
대인 공격행동	6.16(6.14)	4.19(6.56)	2.828**
대물 공격행동	1.72(2.99)	2.10(3.74)	-1.037
분노 표출	4.44(4.38)	5.20(5.42)	-1.412
공격성 총합	19.10(16.42)	18.43(18.72)	.351

\*\*\* p<.001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 공격행동'(t=2.828, p<.001)만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1세 청소년이 14세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2) 성별에 따른 공격성 차이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공격성의 총합은 남아가 평균 18.82점, 여아가 평균 18.52점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대인 공격행동'(t=2.392, p<.05)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분노표출'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4.686,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은 공격성을 직접적인 공격행동으로 나타내고, 여자 청소년은 정서를 표출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3>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남 M(SD)	여 M(SD)	t
언어적 공격	7.46(6.54)	6.22(6.06)	1.801
대인 공격행동	6.10(6.79)	4.41(6.06)	2.392*
대물 공격행동	1.82(3.15)	1.97(3.56)	-.420
분노 표출	3.44(4.12)	5.84(5.06)	-4.686***
공격성 총합	18.82(17.53)	18.52(17.52)	.155

\*p<.05, \*\*\*p<.001

2.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 질

1) 연령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연령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은 11세 청소년

이 평균 48.58점, 14세 청소년이 평균 51.74로 14세 청소년의 긍정적 요인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2.959, p<.01). 하위요인 별로는 '친밀감'(t=-2.392, p<.01), '정서적 지지'(t=-2.82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정서적 지지를 서로 더 많이 주고 받는다고 자각하였다. 반면, 부정적 또래관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연령에 따른 또래관계 질의 차이

또래관계	연령	11세(164)	14세(167)	t
		M(SD)	M(SD)	
긍정적 또래관계	친밀감	8.25(2.95)	8.96(2.50)	-2.392**
	정서적 지지	22.06(5.90)	23.65(4.22)	-2.823**
	관계만족	18.46(3.85)	19.13(3.56)	-1.641
	긍정적 또래관계 합	48.58(10.67)	51.74(8.70)	-2.959**
부정적 또래관계	무시	12.33(4.48)	12.66(3.62)	-.730
	갈등	9.01(3.43)	9.49(3.62)	-1.250
	일방적 주도	9.02(3.06)	9.05(4.46)	-.070
	부정적 또래관계 합	30.36(8.41)	31.20(9.42)	-.856

\*\*p<.01

2)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 중 '무시'(t=2.13, p<.01)만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관계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이나 고립감을 더 많이 느꼈다. 반면,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 질의 차이

또래관계	연령	남(154)	여(177)	t
		M(SD)	M(SD)	
긍정적 또래관계	친밀감	8.41(2.97)	8.79(2.54)	-1.237
	정서적 지지	22.49(5.74)	23.21(4.65)	-1.245
	관계만족	18.79(3.95)	18.79(3.54)	.009
	긍정적 또래관계 합	48.50(10.85)	50.79(8.95)	-1.184
	무시	13.02(4.21)	12.10(3.91)	2.13*
부정적 또래관계	갈등	9.27(3.54)	9.26(3.64)	.02
	일방적 주도	9.32(2.98)	8.80(4.40)	1.22
	부정적 또래관계 합	31.61(8.54)	30.12(8.28)	1.498

\*p<.05

### 3.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따른 또래관계 질

초기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이 공격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격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상·중·하 세 집단<sup>1)</sup>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따른 또래관계 질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격성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8.72, p<.001). 구체적으로 하위요인인 ‘무시·고립감’(F=18.94, p<.001), ‘갈등’(F=32.59, p<.001), ‘일방적 주도’(F=17.92,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무시당하기 쉬어 고립감을 많이 느끼며, 또래들과 같

1) 하집단은 공격성 점수가 0점 이상 8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구성되며 평균점수는 4.49이다. 중집단은 공격성 점수가 9점 이상 21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구성되며 평균 점수는 14.16이다. 상집단은 공격성 점수가 22점 이상 96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구성되며 평균 점수는 38.72이다.

등이 잦고, 자신의 뜻대로 일방적인 주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Duncan검증을 실시했다. 부정적 또래관계 합과 ‘갈등’에서는 공격성의 상·중·하 세 집단간의 차이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무시·고립감’과 ‘일방적 주도’에서는 상집단과 중·하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또래관계의 총합에서는 공격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F=3.10, p<.05)는 유의

<표 6> 공격성 수준에 따른 또래관계 질

범주	하위범주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검증
부정적 또래 관계	무시· 고립감	상(108)	14.32	4.51	18.94***	A
		중(109)	11.98	3.71		B
		하(114)	11.25	3.30		B
부정적 또래 관계	갈등	상(108)	11.10	4.01	32.59***	A
		중(109)	9.19	3.16		B
		하(114)	7.58	2.36		C
부정적 또래관계 의 합	일방적 주도	상(108)	10.74	5.12	17.92***	A
		중(109)	8.39	2.55		B
		하(114)	8.03	2.72		B
부정적 또래관계 의 합	무시· 고립감	상(108)	36.15	10.13	38.72***	A
		중(109)	29.56	7.53		B
		하(114)	26.86	6.07		C
부정적 또래 관계	관계만족감	상(108)	18.24	3.98	2.27	
		중(109)	18.84	3.55		
		하(114)	19.30	3.57		
긍정적 또래 관계	정서적지지	상(108)	21.85	5.05	3.10*	A
		중(109)	23.31	4.67		B
		하(114)	23.39	5.21		B
긍정적 또래 관계	친밀감	상(108)	8.88	2.92	1.68	
		중(109)	8.73	2.62		
		하(114)	8.24	2.68		
긍정적 또래관계 의 합	정서적 지지	상(108)	48.97	10.22	1.23	
		중(109)	50.59	9.82		
		하(114)	50.92	9.46		

\*p<.05, \*\*\*p<.001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공격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격적인 청소년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정서적인 지지는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지지'에서 상 집단과 중·하 집단간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 질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공격성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공격성에 있어서, 연령이 낮은 아동이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능력의 발달로 공격성의 부정적 결과와 타인의 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Dodge, 1983; Fabes & Eisenberg, 1992), 조망수용능력, 공감능력, 도덕적 추론능력이 발달하면서 대인관계 내에서의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성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인 공격행동'을 제외한 '언어적 공격', '대물 공격행동', '분노 표출'의 평균점수가 연령에 따라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 대인간의 공격성은 줄어들고, 다른 형태의 반사회적·비전형적인 형태의 공격성은 증가했다는 선행연구(Bierman, Smoot, & Aumiller, 1993)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공격성의 하위요인별 유형의 변화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공격성에 있어서는 하위요인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대인공격행동'에서는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분노 표출'에서는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공격행동'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는 또래관계에서 여아가 관계적·친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아가 더욱 적대적·공격적(Khatri, 1996; Lagerspetz & Bjorkqvist, 1994)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노표출'에 있어서의 성차는 여아의 직접적인 공격행동은 또래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으므로(Fagot & Hagan, 1985), 분노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으로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사회화되는 배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공격성에서의 성차는 각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 무엇인가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수용되는 기준이 남아와 여아간에 서로 다르며(Cairns et al., 1988), 성에 따라 부모가 다른 양육태도(Loeber & Stouthamer-Loeber, 1998)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공격성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



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부모들은 남아와 거친 방식으로 놀이를 즐기고 남아의 신체적 공격 행동에 허용적이나, 여아의 공격적 행동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아는 정서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남아는 과묵할 것을 기대하고 정서 표현을 자제하도록 사회화하는 경향이 있다(한유진·유안진, 1998).

둘째, 연령이 높은 청소년의 긍정적 또래관계 질이 높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며 정서적 지지를 서로 더 많이 주고받았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여 청소년기가 됨에 따라 또래와의 친밀감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들(김진경·유안진, 2002; Berndt, 1982; Hunter & Youniss, 198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초기 청소년기 동안 우정관계에 대한 기대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어린 아동들은 우정을 친구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활동으로 생각하는 반면, 초기 청소년들은 우정을 친밀감, 신뢰, 상호존중과 같은 심리학적인 특성에 기반한 관계라고 생각한다(Berndt, 1982).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또래관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정적 또래관계 양상은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또래관계의 '무시'요인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또래에게 더 많이 무시당한다고 느꼈

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또래관계의 측면인 갈등과 경쟁을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미해, 1992; 이주옥, 1984)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는 또래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행동(Hartup, 1983)하여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이입과 공감을 표현하는 반면, 남아는 '관계'보다는 '독립'이나 '성취'에 더욱 관심이 많아 또래관계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공격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갈등요인도 높았으며, 또래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지나친 공격행동, 사회적 기술의 결핍으로 인해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고(Khatri, 1996), 또래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Berndt & Perry, 1986)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 중 '친밀감'과 '관계만족'은 공격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정서적 지지'만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공격적인 청소년이 또래에게 거부당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친밀한 또래관계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는 청소년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또래들과 사귀게 되며(Cairns et al., 1988),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도도 높아 양가적인 양상을 보인다(Coie et al., 1982)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즉 공격적인 청소년

들도 공격수준이 낮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그룹 안에서 어울려 다니거나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친밀감'과 '관계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친구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온정을 베푸는 '정서적 지지'에 있어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려 다닐지라도 정서적 안정감의 원천이 되고 더욱 성숙한 또래관계로 이끄는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또래와 정서적 지지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깊은 우정을 형성하고(Berndt & Perry, 1986; Furman & Buhrmester, 1985),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발달시킨다(Berndt, 1982). 이점을 고려해볼 때,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친밀한 또래관계 내에서도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궁극적으로 형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격적인 청소년들의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대인관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적인 성향을 중재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을 하위 요인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공격성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양상을 밝히기 위해, 또래관계 질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공격적인 청소년이 또래관계 내에서 갈등·무시·일방적 주도과 같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수행한다는 점과, 친밀감·관계만족은 느끼나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중재가 시급함을 밝혔다. 따라서 공격적인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미혜(1992). 아동의 공평성, 우정 개념 발달 및 배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경·유안진(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나유미(2000). 또래에 대한 아동의 내적표상모델과 또래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1(4), 143-158.
- 유안진·한유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옥(1984).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 Bierman, K. L., Smoot, D. L., & Aumiller, K. (1993).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Rejecter, Aggressive (Nonrejected), and Rejected(Non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64, 139-151.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 (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Cillessen, A. H., Van IJzendoorn, H. W., van Lieshout, C. F. M., & Hartup, W.W. (1992). Heterogeneity among peer-rejected boys : Subtypes and stabilities. *Child Development*, 63, 893-905.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ie, J. D., Dodge, K. A., Wright, T. V. (1991). The Role of Aggression in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2, 812-826.
- Crick, N. R., & Dodge, K. A. (1996).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ishion, T. J., Patterson, G. R., & Griesler, P. C. (1994). Peer adaptation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 A confluence model . In L. R. Huesmann(Ed.), *Aggressive behavior : Current perspective*(pp. 61-95). NY : Plenum Press.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emotional arousal and anger/aggressive behaviors. In A. Fraezek & H. Zumkley(Eds.), *Socialization and aggression*(pp. 85-102). Berline : Springer-Verlag.
- Fagot, B. I., & Hagan, R. (1985). Aggression in toddlers : Responses to the assertive acts of boys and girls. *Sex Roles*, 12, 341-351.
- Farrington, D. P.(1995).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 Key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36.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NY : John Wiley.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06-811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hatri, P. (1996). Aggression,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rural indian yout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Keenan, K., Loeber, R., Zhang, Q., Stouthamer-Loeber, M., & Van Kammen, W. B. (1995). The influence of deviant peers on the development of boys' destructive and delinquent behavior : A temporal

-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logy*, 7, 715-726.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gerspetz, K. M. J., & Bjorkquist, K. (1994). Indirect aggression in boys and girls. In L. R. Huesmann (Ed.), *Aggressive behavior : Current perspective* (pp. 131-150). New York : Plenum Press.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ce development* (pp. 301-329).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ggle, N., Panak, W. F., Garber, J.,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Smollar, J. & Youniss, J. (1982). Social Development through friendship.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rk : Springer-Verlag.
- Zakriski, A. L., & Coie, J. D. (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and nonaggressive-rejected boy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 1048-1070.